

JAPAN

# 일본 콘텐츠 산업동향

CONTENTS INDUSTRY TREND OF JAPAN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사무소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 주간 심층이슈

## 『일본의 주요 연예프로덕션 업체 및 신인발굴 현황』

### ◎ 작성취지

- 일본의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은 100여년의 오랜 역사를 통해 성립되었음. 수많은 시행착오와 교훈을 통해 현재와 같은 연예프로덕션 시장이 형성된 것임.
- 연예프로덕션과 매체와의 관계는 역학관계가 늘 존재함. 일본 역시 그런 역학관계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의 다양한 변주 속에서 매체와 연예프로덕션의 공생이 시도됨.
- 일본 연예계를 움직이는 연예프로덕션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연예 프로덕션의 실상을 반추해보고 우리 스타의 일본 엔터테인먼트 업계 진출시 참고 자료로 삼고자 함.

※출처: 예능계 베스트 셀렉션 2012(오리콘 엔터테인먼트, 2012년 1월)와 각사 홈페이지 등을 참고

### ◎ 작성순서

- 1. 일본의 주요 연예프로덕션 업체 및 신인발굴 현황

## 1. 주요 연예프로덕션 업체 및 신인발굴 현황

### ■ 주식회사 어뮤즈 (Amuse Inc.)

#### ○ 기업 개요

- 어뮤즈는 뮤지션을 중심으로 한 동경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된 대형 연예프로덕션이며 TV프로그램 및 영화 제작도 담당. 1977년 설립되었으며 그룹기업을 통해 DVD 및 비디오소프트 판매 등도 함.

- 어뮤즈는 정상급 아티스트인 사잔올스타즈(サザンオールスターズ), 후쿠야마 마사하루(福山雅治), BEGIN, flumpool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연예인을 배출해왔으며 이와 더불어 신인 육성과 한국 등 아시아 시장 개척에도 의욕적인 것이 특징
- 유명 가수와 더불어 배우인 미야케 유지, 후카츠 에리, 우에노 주리, 요시다카 유리코(최근 한국의 OCN 드라마 ‘뱀파이어 검사 2’에 출연) 등 다양한 연예인의 매니지먼트 외에, 영화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 각종 영상 소프트 제작/판매, 지구고져스와 극단 SET의 오리지널 무대 제작 등을 하고 있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
- 2006년에 도쿄증권거래소 제 1부에 상장됨. 2011년도 영업수입은 약 312억 엔(연결결산)

【그림 1】 어뮤즈의 영업수입 추이



- 2011년 5월 한국, 베이징, 상해에 이어 아시아 거점으로 <雅慕斯娛樂股份有限公司>를 대만에 설립함
- 음악 아티스트 발굴과 현지 저작권의 제공을 담당하는 법인을 중국과 한국에, 영상콘텐츠 제작사를 미국에 설립하는 등, 활발한 해외 전개를 전개해옴.

■ 그림 2 ■ 어뮤즈의 사업별 영업수입 구성분포



- 2008년 4월 1일, KDDI와 함께 차쿠우타폴 등의 휴대폰용 음악전송 서비스를 중심으로 음악 CD 및 DVD제작, 음악관리 등 음악레벨사업을 담당하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기업 <주식회사 A-Sketch>를 설립함
- 아시아 관련 비즈니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2011년 6월에 설립한 <라이브뷰잉 재팬>에서는 영화 이외의 콘텐츠를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 영화관에 전송/상영하는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2010년 NHK의 대하드라마 <류마덴(龍馬傳)>에 어뮤즈 소속의 후쿠야마 마사하루가 주연을 맡은 것에 이어서, 2011년 대하드라마 <고우(江) ~ 공주들의 전국 ~>에서는 우에노 쥬리가 주연을 맡음
- 어뮤즈 관련회사는 어뮤즈 소프트 엔터테인먼트, 타이시타레벨 뮤직, A-Sketch, 어뮤즈 에듀테인먼트, 예신크리에이티브, 에아즈, 제이필, 브랏셀즈, 라이브뷰잉 재팬, Kirei, 어뮤즈코리아, 북경예신연예 예술제작유한공사외 2사 등이 있음.

### ○ 신인 발굴 시스템

- 자사에서 제작하는 영화와 뮤지컬 연출 오디션 등, 독자적인 오디션을 통해 신인을 발굴하고 있음

- 2007년에는 <어뮤즈 전국오디션>을 개최함. 2009년에도 <어뮤즈 전국오디션 2009 THE PUSH! MAN>을 개최함. 향후 신인발굴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임
- 신인 발굴프로세스는 먼저 양성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임.
- 양성 계약 단계부터 매니저가 있으며, 탤런트의 경우 발성 연습, 밴드라면 라이브 출연에 프로모트 등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육성
- 지방 거주자의 경우는 기숙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학교 알선 등, 도쿄에서 생활 시작 후에 대한 관리도 하고 있음

## ■ 주식회사 업프론트그룹(UP-FRONT GROUP Co., Ltd.)

### ○ 기업 개요

- 예능 프로그램, 레코드회사, 음악출판사 등, 모두 25사로 구성된 종합엔터테인먼트 그룹임. 대표적인 소속 연예인으로는 모리타카 치사토, 샤란큐, 모닝구무스메, 호리우치 다카오 등임.
- 그룹 내의 소속 연예인 및 아티스트끼리의 콜라보레이션이 많음.
- 1971년 당시 일본을 대표하는 밴드 “아리스“의 소속사무소로 영재팬이 설립됨. 이후, 새로운 뮤직 그룹이 소속되면서 몇 번의 조직변경을 거친 후, 1983년 그룹의 핵심기업인 업프론트 엔터테인먼트가 설립됨.
- 이후, 모리타카치사토, 샤란큐, 모닝구무스메 등 인기 아티스트의 육성/발굴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분사/종합화를 실시함
- 모리타카치사토(森高千里), 샤란큐(シャ乱Q), 모닝구무스메(モーニング娘) 등의 히트로 부동산 투자를 한 결과, 현재는 이익 면에서 부동산 사업이 소득 이익의 1/3을 차지하고 있음
- 업프론트그룹은 현재는 음악을 중심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종합 기업으로 다양한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25사로 구성되어 있음.
- 업프론트 그룹의 전신은 포크송계열 및 뉴 뮤직계열 가수가 소속했던 영재팬그룹으로 1970년대 이후 뉴 뮤직계와 포크송 계를 리드해왔던 음악사무소임.
- 이런 칼러로 인해 베테랑 가수가 다수 소속되어 있으며 음악업계

영향력과 더불어 가수 육성에 강한 면모를 보여 일본레코드대상 및 전일본유선방송대상/일본유선대상 등의 음악상을 수상한 수많은 가수를 배출하고 있음.

- 영화 및 드라마 등의 방면에서는 취약하나 최근에 뮤지컬 및 무대 분야에서 여배우 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음.
- 매년 발표되었던 연예프로덕션 신고소득 랭킹에서 항상 상위에 랭크되었던 대형 프로덕션임(2006년도 랭킹에서 제 3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는 미발표)
- 관련회사로는 업프론트 프로모션, 제이필름, 업프론트 음악출판, 업프론트 워크스, TNX, 업프론트 인터내셔널, 오딧세, 업프론트 북스, 키즈넷, 하나바다케 목장, 아지와이 후즈, 피직, 스튜디오 케이그룹, 오딧세 부동산, 업프론트 간사이, 커튼 클럽 재팬, 어프타스, 업프론트 하와이, 업프론트 트렌드, UJ플래닝, 그라비티, 업프론트 크리에이트, 업프론트 그룹, 업프론트 그룹, 업프론트 디시, 유팩토리 등이 있음.

※관련회사인 업프론트 프로모션의 경우, 2006년 매출이 73억 엔을 기록

### ○ 신인 발굴 시스템 : 헬로! 프로젝트 <연수생> 오디션

- 업프론트그룹의 헬로! 프로젝트 <연수생>은 아이돌 예비군을 발굴하기 위해 수시로 개최하고 있는 오디션으로 노래와 댄스에 경험이 없어도 폭 넓은 개성과 끼를 중시하고 있음
-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여성임. 합격자는 도쿄에서 매월 수차례의 레슨을 받고, 콘서트나 무대에 출연할 때는 그 리허설과 연습에도 참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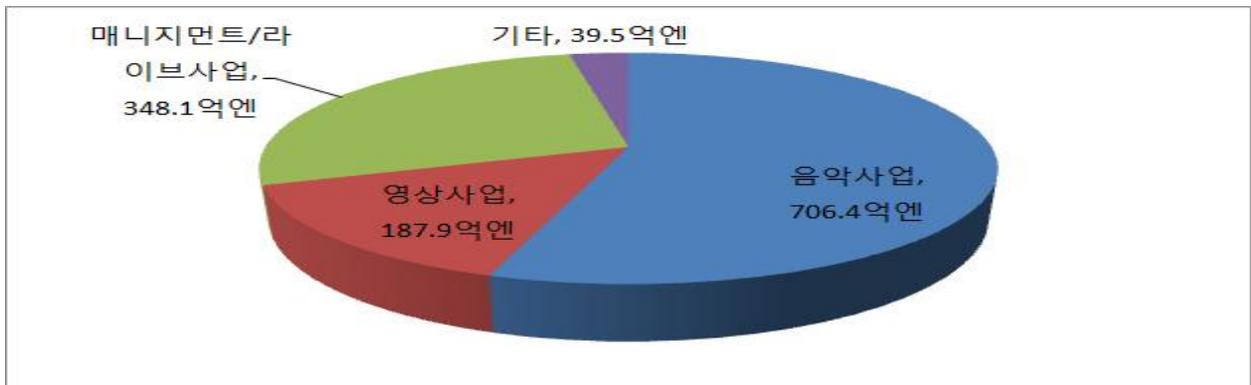
### ■ 주식회사 에이벡스 매니지먼트(avex management)

#### ○ 기업개요

- 일본의 대형 종합엔터테인먼트 그룹인 에이벡스그룹 홀딩스의 매니지먼트 사무소로 2009년 1월 그룹 산하의 에이벡스 엔터테인먼트의 매니지먼트 사업 및 프로모션 부의 일부 사업을 분리해서 설립.

- 대표적인 소속 연예인으로는 하마자키 아유미, 보아, 고다구미, 에브리 리틀 킵, 사와자리에리카 등임.
- 에이벡스 그룹 홀딩스의 2011년도 매출은 1210억 엔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이익은 49억 엔임. 매출구성은 음악사업 55%, 매니지먼트/라이브사업 27%, 영상사업 15%, 기타 사업 3%임.

■그림 3■ 에이벡스 그룹의 사업별 영업수입 구성분포



- 매니지먼트/라이브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니지먼트가 104.7억 엔, 머천다이징 71.4억 엔, 팬클럽 22.6억 엔, 라이브 177.2억 엔, 기타 7억 엔임.
- 에이벡스 그룹이 창업 이후 줄곧 아티스트, 탤런트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함께 전개해 옴.
- 음악활동을 기반으로 한 아티스트와 텔레비전, 영화, 무대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연예계 인재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상생 프로덕션 모델 확립을 지향하고 있음.
- 2009년 3월 시점에서 에이벡스 매니지먼트에는 음악계, 예능계, 스포츠계 등 탤런트를 약 100여 명 소속되어 있음
- 일찍부터 한국 가수들의 일본 진출에 힘을 쏟아, 보아, 동방신기, 신승훈 등이 소속되어 있음
- 에이벡스 매니지먼트 관련회사로는 에이벡스 그룹 홀딩스, 에이벡스 엔터테인먼트, 에이벡스 마케팅, 에이벡스 라이브 크리에이티브, 에이벡스 플래닝&디벨로프먼트, 에이벡스 뮤직 퍼블리싱, 에이벡스 통신방송, 에이벡스 클래식 인터내셔널 등이 있음.

## ○ 신인발굴 시스템

- 신인 발굴/육성 등을 총괄하는 <에이벡스 그룹 홀딩스(주)> 아티스트 개발육성 총괄부와 함께 보컬리스트/밴드/싱어송라이터/배우/탤런트/모델 등 폭넓은 인재를 대상으로 한 오디션을 다수 개최하고 있음
- 또한, 성우, 아나운서, 어레인저, 트랙메이커 등의 발굴/육성도 실시
- 데모음원, 프로필 등은 홈페이지에 있는 엔트리 폼 또는 우편으로 항상 응모할 수 있음
- 아티스트 육성 기관 <에이벡스 아티스트 아카데미>에서 개인의 능력과 가능성에 맞춘 레슨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음.
- 주요 교육 내용은 보컬트레이닝, 댄스, 연기, 워킹, 피트니스 등으로 소속된 이후 약 6개월 만에 데뷔하는 경우에서 능력과 마켓 환경 등에 맞추어 데뷔까지 수년 걸리는 케이스까지 다양함

## ■ 주식회사 오타프로덕션(OHTA PRODUCTION Inc.)

### ○ 기업개요

- 개그맨계를 리드해 온 프로덕션으로 현재는 배우/여배우 등 드라마 부문도 충실함
- 1958년 설립된 이후, 개그계를 리드해 온 프로덕션으로 설립 당시에는 무대 중심의 희극 배우와 코미디언의 매니지먼트를 했었음
- 유명하게 된 것은 1960년대 말로 덴푸쿠트리오, 트리오더밴드 등을 중심으로 일어난 ‘트리오붐’ 임
- 그 뒤, 비토타케시/키요시의 투비트를 배출하는 등 만담 붐을 일으켜, ‘웃음 제국’으로써 부동의 위치를 구축함
- 다만 비토타케시를 비롯한 다케시 군단등이 독립해 오피스 기타노를 설립했고 간판 탤런트인 가타오카 츠루타로가 배우로 전환하면서 영향력은 예전만큼은 못한 상태임.
- 현재도 다쇼클럽(ダチョウ倶楽部), 게키단 히토리(劇団ひとり), 마츠무라구니히로(松村邦洋) 야나기하라 가나코(柳原可奈子) 등, 개그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배우 등이 소속되어 있음

- 스포츠선수였던 탤런트들도 다수 소속되어 있어 다양한 탤런트를 매니지먼트하고 있음. 현재 소속된 연예인은 약 120여명에 이름.
- 드라마부분에서는 가타오카 츠루타로(片岡鶴太郎)를 비롯한 실력파가 소속되어 있고, 신도 마나부(進藤学)와 이시이 도모야(石井智也) 등 젊은 실력파 배우의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음
- 젊은 여배우, 여성 탤런트의 발굴 및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 엔터테인먼트부에서는 드라마와 영화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아이돌그룹 AKB48리더 출신의 마에다 아츠코(前田敦子)와 오오시마 유우코(大島優子) 등이 소속되어 있음
- 소속탤런트의 급료는 사장이 직접 현금으로 지불하는 시스템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
- 관련회사는 이소노 음악출판, 오오타 출판, 파루사(탤런트 MD의 판권관리) 등이 있음.

### ○ 신인발굴 시스템

- 각 부문 모두 신인 개발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 위탁 및 정식 소속 연예인의 경우, TV 등의 각매체에 적극적으로 프로모션 한다는 것이 방침임.
- 예능부분의 경우, 개그맨 지망자를 대상으로 한 무대를 월 1회 정도로 개최하고 있음
- 합격자는 <오오타프로 라이브>에 출연할 수 있으며 고정 출연하게 되면 소속 탤런트가 됨
- 또한, 개그맨 육성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학원>(유료)도 운영하고 있음
- 드라마 부문은 연 1회, 워크숍 형식의 오디션(유료)를 개최하고 있음
- 우수자는 1년의 연수 기간을 거친 뒤 소속 탤런트가 됨
- 모두 개인의 가능성을 보고, 각 장르에 프로모트를 전개함
- 월간 데☆뷰<여름의 특별 오디션>에도 매년 참가하고 있음. 일반 공모도 수시로 접수하고 있는 가운데, 희망자는 지원분야와 관계없이

이력서, 사진을 동봉해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음

## ■ 주식회사 오스카 프로모션(Oscar Promotion Co.ltd.)

### ○ 기업개요

- 1970년 주로 서양인과의 혼혈 모델이 소속된 모델 클럽으로 설립되었고 1980년대 후반이후 연예 프로덕션 업무를 겸무하기 시작한 적도 있으며 현재는 가장 큰 모델 프로덕션임.
- 모델에서 스타로 키우는 프로모션을 일찍부터 확립하고, <전일본 국민적 미소녀 콘테스트(全日本国民的美少女コンテスト)> 등을 통해 다양한 엔터테이너를 배출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임. 소속 탤런트 및 프로모션에 적극적이며 ‘CF여왕’을 가끔씩 배출하기도 함. 총인원 5,500명의 탤런트, 모델이 다방면으로 활약하고 있어 ‘미의 종합상사’라고 불리기도 함.
- 1970년 창업 이후, ‘미(美)’를 하나의 문화로 정의하고 ‘미문화의 창조’를 기업 이념으로 하고 있음.
- 모델의 세계에서 예능계의 탑 스타가 탄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모델에서 여배우/탤런트로’의 프로모션 전개를 확립함
- 1987년부터 일본 여성의 정통미를 후세에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토 구미코(後藤久美子)를 메인캐릭터로 <전일본 국민적 미소녀 콘테스트>를 개최해옴.
- 이후, 2009년의 제12회 대회까지 일본에서 개최되는 콘테스트 가운데 응모규모 및 실적 모두 최고 수준이며, 요네쿠라 료코(米倉涼子), 우에토 아야(上戸彩), 후쿠다 사키(福田沙紀), 다케이 사키(武井咲) 등을 비롯한 수많은 스타를 배출해 옴.
- 다른 연예프로덕션이 대부분 단기 데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전일본 국민적 미소녀 콘테스트에 뽑힌 수상자는 시간과 품을 들려 몇 년에 걸쳐 레슨을 받고 데뷔시키고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긴 연예 활동을 보장받고 있음.
- 여배우가 연속 드라마가 없는 기간중에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출연시키는 등 최근에는 버라이어티 분야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음. 이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높은 PR효과 때문이라고 함.

- 2007년에는 버라이어티 부문을 설립해 코미디언 매니지먼트 사업에도 진출. ‘오스카 프로 코미디 라이브’를 주최하는 것은 물론 코미디언도 소속하게 됨.
- 2008년 10월에는 신세대 엔터테인먼트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1년제 양성스쿨인 ‘오스카 1호 코미디 팩토리’를 개설함.
- 연예 프로덕션으로는 드물게 IT계 지식에 정통한 디지털 콘텐츠 사업1본부라는 부서가 존재함. 오스카 프로모션의 디지털 콘텐츠 역사는 1995년 동종업계에서는 최초로 홈페이지를 개설한 것에서 시작됨.
- 이후, 항상 예능모델업계의 디지털미디어 전략의 ‘사실상 표준’ (De Facto Standard)을 만들어옴.
- 현재에는 국민적 미소녀(모바일판 공식 콘텐츠), 오스카 모델즈(모델 포털사이트), 업계에서 처음으로 SNS사이트 ‘be♡amie’ 을 운영하고, 브로드밴드 드라마, 넷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등, 기획, 제작, 전송에 힘을 쏟고 있음.
- 매니지먼트업무 외에 텔레비전, 영화, 무대, 음악, 머천다이징, 디지털콘텐츠 등을 기획/제작하고 있음.
- 2003년 요네쿠라 료코가 한국문화관광부 친선대사가 되어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이 한국 미디어에서 크게 다뤄지면서 한국에서 오스카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한국과의 관계가 확대됨.
- 중국 최대 종합엔터테인먼트 CHINA BENTLEY사와 업무 제휴를 맺은 것을 비롯해, 한국의 대형 모델 에이전시인 MODEL CENTER사와 업무 제휴 등 적극적으로 해외 네트워크를 넓히고 있음
- 이후에도, 다양한 미의 엔터테이너를 배출하는 것에 주력해, 국제적인 스타를 발굴/육성하고, 일본, 아시아, 세계로 뻗어가는 ‘미(美)’의 프로모트를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는 전략임
- 사원의 채용기준이 매우 엄격한 것으로 유명함. 뜨거운 열정과 일반 상식을 갖고 있지 않으며 합격하기 어렵다고 소문남. 또한 합격하고 2개월간의 연수기간과 3개월간의 시범기간이 있는 등 일정한 심사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채용되지 않음.

- 채용과정은 다음과 같음. 제 1차 심사: 이력서 등의 서류선고, 제 2차 심사 : 입사테스트(일반상식등 약 200문제)/PC조작능력 테스트 선고, 제 3차 심사 : 면접(면접관 10명 정도) 선고, 최종심사 : 최종 면접 선고, 연수기간 : 2개월, 시범기간 : 3개월 채용
- 관련회사로는 오스카 기획, 오스카 음악출판, 오스카 상사, 오스카 인터내셔널 에이전시, 오스카 엔터테인먼트 스쿨, 오스카 아나운스 학원 등이 있음.

### ○ 신인발굴 시스템

- <전일본국민적미소녀콘테스트(全日本国民的美少女コンテスト)>를 비롯해 다양한 콘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음
- 미소녀 콘테스트 개최 이외의 시기에도 오디션을 개최하고 있으며 스카우트와 일반 공모도 수시로 하고 있음
- 채용 후에는 본인의 소질에 맞춰서 워킹, 연기, 댄스, 아나운서 등의 레슨을 실시함
- 육성 기간 중이라 해도 가능성이 보이면 데뷔의 가능성도 있음
- 모델에서 텔런트(배우)로 전환한 케이스로는 요네쿠라 료코(米倉涼子), 기쿠카와 레이(菊川怜), 이시카와 아사미(石川亜沙美) 등이 다방면에서 활발히 활약하고 있음

### ■ 주식회사 켄온研音(KEN-ON)

#### ○ 기업개요

- 1979년 켄온출판(研音出版)주식회사의 음악사업부를 발전적으로 해체해서 설립한 프로덕션임.
- 설립 당시 가수였던 아사노 유우코(浅野ゆう子)가 여배우로 전향해 성공함. 그 뒤, 나카모리 아키나(中森明菜)가 수많은 빅히트 곡을 내면서 현재의 기초를 닦음.
- 이후 야마구치 도모코(山口智子), 가라사와 토시아키(唐沢寿明), 소리마치 다카시(反町隆史), 다케노우치 유타카(竹野内豊), 에스미 마키코(江角マキコ), 료(りょう) 등이 잇따라 인기 배우로 지위를 확립

## 해 감

- 최근에는 아마노 유키(天海祐希), 간노 미호(菅野美穂), 하야미 모코미치(速水もこみち), 마츠다 쇼타(松田翔太), 에이쿠라 나나(榮倉奈々)가 그 뒤를 이어 인기를 모으며 활발히 활약하고 있음. 켄온은 도쿄 키 스테이션의 TV드라마 캐스팅에 강하며 골든 타임대 드라마에서 주연급 점유율이 매우 높음.
- 켄온의 프로모트 능력은 항상 업계를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뮤지션의 발굴/육성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어서 많은 히트 메이커를 세상에 내놓고 있음
- 텔런트의 매니지먼트 이외에도 CD 원반제작과 저작권 관리 등 폭넓은 업무를 전개하고 있음
- 히라이 켄(平井堅)과 the brilliant green의 히트로 거대 매니지먼트 그룹으로 성장했고, 최근에는 아야 카(絢香)가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앨범 세일 150만 장을 넘는 기록을 수립하기도 함
- 모바일 콘텐츠서비스에도 일찍부터 참여해, 현재도 <켄온 Message>의 콘텐츠 타이틀로 아이모드, SoftBank, EZ web의 모든 휴대폰 캐리어에 소속 아티스트의 최신 정보를 전송해 호평을 받고 있음
- 켄온 관련회사로는 켄기획(영업), 엠시케빈 음악출판(원반, 출판관리), 랫드 재팬(MD기획, 판매, 초상권 관리, IT사업) 등이 있음.

## ○ 신인개발시스템

- 배우, 뮤지션 등, 일반 공모는 수시로 받고 있음.
- 합격 후에는 연기, 댄스 등의 레슨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음. 양성 기간 중에 드라마 단역부터 시작해, 실전에서 경험을 쌓도록 하는 지도방법을 채택하고 있음
- 뮤지션 지망생의 경우는 정식으로 소속된 뒤부터 본인의 자질, 방향성에 맞춰 보컬, 댄스 등의 레슨을 받을 수 있음
- 학생일 경우에는 학업 우선을 기본으로 스케줄을 조정하고 있음. 지방거주의 경우는 소속 결정 이후에 도쿄로 상경해 전학과 주거는

## 스텝이 케어해 줌

### ■ 주식회사 재팬뮤직 엔터테인먼트(Japan Music Entertainment)

#### ○ 기업개요

- 가수, 배우, 멀티탤런트 등 폭넓은 분야의 탤런트가 소속하고 있는 창업 30년이 넘는 종합예능프로덕션임
- 1980년 샤네루즈(현, RATS&STAR)를 프로듀스할 목적으로 창업함
- 보컬리스트 스즈키 마사야(鈴木雅之)를 비롯 유스케 산타마리아(ユースケ・サンタマリア), 스즈키 안즈(鈴木杏樹), 후지와라 료우코(篠原涼子), 다니하라 쇼우스케(谷原章介) 등 실력과 배우가 다수 소속되어 있음
- 배우 가미지 유스케(上地雄輔)는 아티스트 유스케(遊助)로써도 활동하며 다양한 재능을 발휘하고 있음
- 잡지의 전속 모델로써 활약하고 있는 치바 유우타(千葉雄太)는 <천장전대고세이저>의 레드 역할로 배우로 데뷔한 뒤, 현재는 드라마 외에 버라이어티에서도 활약하고 있음
- 후쿠타 메이(福田萌)는 다수의 라디오 게스트로써 활약하고 있음.
- 본인의 장점을 키우면서 잠재된 재능을 발굴한다는 매니지먼트 방침으로 육성.
- 관련회사로는 이 콘셉, 엑사이팅 트리거, 엔조이 뮤직, 마더 팝콘, 테이킷 에이전시(이상 연예프로덕션), 재팬 엔터테인먼트 아카데미(탤런트 스쿨) 등이 있음.

#### ○ 신인개발시스템

- 데☆뷔 <여름의 특별 오디션>에 매년 참가하고 있음. 일반 공모는 수시로 접수하고 있음
- 가수, 배우, 멀티탤런트 등 지망 장르는 따지지 않고 있음.
- 업무 제휴하고 있는 예능스쿨 <재팬 엔터테인먼트 아카데미>에서 연습생으로써 개성을 연마하고 업계 관계자 대상의 프레젠테이션 등을 통해 데뷔 또는 소속이 되는 경우도 있음

-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육성방법을 실시하고 있음
- 레슨(무료)도 개인의 소질과 희망에 맞춰 연기와 보이스 트레이닝 등을 하고 있음
- 스탭과 탤런트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시하고 있어, 연습생은 주 1회 정도 사무소를 방문해, 스탭들의 어드바이스를 받고 있음
- 연습생 기간 중에도 드라마와 광고 등의 오디션을 적극적으로 받게 하고 있음
- 뮤지션의 경우도, 본인의 자질과 음악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함. 학생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학업우선. 보호자 및 학교와 상의하면서 스케줄을 조정함.

## ■ 주식회사 소니뮤직 아티스트 SMA(SONY MUSIC ARTISTS))

### ○ 기업개요

- 음악업계 최대 규모인 소니 뮤직 엔터테인먼트 산하의 연예매니지먼트 기업임.
  -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의 2011년도 매출액은 1,743억 엔을 기록
- 아티스트에서 배우, 탤런트, 개그맨까지 소속된 다양한 아티스트 개발부를 갖고 있으며 신인 개발에 적극적임
- 1974년에 CBS 소니(현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의 전액 출자로 설립된 매니지먼트 회사 에이프릴뮤직이 전신임
- 그 뒤, 1989년에 CS아티스트, 1993년에 현재의 사명으로 바뀜
- 1993년에는 탤런트, 배우를 중심으로 한 소니뮤직스타즈와 분리된 뒤, 2002년에는 다시 소니뮤직 스타즈를 흡수 합병함
- 2006년 4월에는 각 제작부문 및 산하회사를 재편/통합해서 소니뮤직 아티스트를 HQ로써 매니지먼트 컴퍼니 6사를 발족시켜서,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사업 그룹을 형성함
- 그리고 2009년 4월,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사업그룹을 주식회사 소니뮤직아티스트에 흡수/합병시킴
- 현재는 아티스트 이외에도 와타나베 마리나(渡辺満里奈), 구라시나 카나(倉科カナ), 하시모토 아이(橋本愛) 등 탤런트와 여배우 외에 히

비키(響), AMEMIYA 등 개그맨, 문화인과 그 외 성우 등 폭넓은 인재를 매니지먼트하고 있음

- 가수로는 오쿠다타미오(奥田民生), 유니콘(ユニコーン), 기쿠라카에라(木村カエラ), CHEMISTRY, PUFFY, 기시단(氣志團), YUKI, 니시노카나(西野カナ) 등 다채로운 아티스트가 소속되어 있음

### ○ 신인개발시스템

- 주식회사 소니뮤직아티스트에는 ‘아티스트 개발부’ 라는 신인 발굴 전문 부서가 있어, 주로 탤런트, 배우, 가수 등을 중심으로 한 <SMA 틴즈 오디션 HuAHuA>, 싱어 송 라이터, 밴드, 아티스트 등을 중심으로 한 <프리프로 오디션>을 축으로, 직접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아티스트를 선발하는 <코토비키 오디션>과 가수를 선발하는 <우다유메 오디션>, 애니메이션에 특화된 <아니스토테레스> 등의 전국 오디션을 개최하고 있음
- 매월 응모를 받고 있는 <먼스리 오디션>도 개최하고 있음
- 신인 채용 후에는 학생의 경우 학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방 거주자는 주말과 방학 등을 이용해 보컬트레이닝과 연기 지도, 사진 촬영, 각 매체 프로모션 등을 실시하고 있음
- 개인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 소질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육성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 주식회사 다나베 에이전시(TANABE AGENCY.Co. Ltd.)

### ○ 기업개요

- 탤런트, 배우, 음악 아티스트 등 다양한 분야의 매니지먼트를 전개하고 있고 신인 개발에도 적극적임
- 1973년에 설립한 프로덕션으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 없어서는 안될 베테랑 탤런트, 타모리(タモリ)를 비롯, 나카사쿠 히로미(永作博美), 사카이 마사토(堺雅人) 등의 실력파 배우까지 매니지먼트의 폭이 다양하며, 특히 최근에는 배우 부문이 충실해지고 있음

- 또한, RIP SLYME, HALCALI 등 음악 아티스트의 활약도 돋보임.
- 다양한 소속 아티스트들을 각 장르에 효율적으로 프로모트하는 것과 함께 차세대를 끌고갈 인재의 발굴, 육성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관련회사로는 디즈 음악출판이 있음.

### ○ 신인개발시스템

- 오디션, 일반 공모, 스카우트, 관계자들의 소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인 발굴을 하고 있음
- 신인 채용 후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미팅을 통해서 방향성을 결정함
- 기본적인 자세 외에, 사회 상식과 매너도 동시에 학습시키는 것이 특징임
- 적절한 타이밍에 텔레비전, 라디오, 잡지 등의 미디어와 레코드회사 등에 프로모션을 전개함

## ■ 주식회사 바닝구프로덕션(Burning Production)

### ○ 기업개요

- 탤런트 한 사람을 차근차근 육성해, 인기를 얻은 뒤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서포트함
- 1971년 당시의 인기 아이돌 미나미 사오리(南沙織)의 매니지먼트에서 업무를 시작함
- 이후, 고 히로미(郷ひろみ), 고이즈미 교우코(小泉今日子), 우치다 유키(内田有紀) 등 다수의 스타를 배출해 온 프로덕션임
- 설립 초기부터 일관적으로 가수를 중심으로 발굴/육성해 왔지만, 현재는 가토 마사야(加藤雅也), 이나모리 이즈미(稲森いずみ), 웬츠(ウエンツ瑛士), 고이케 텃페이(小池徹平), 이나바 사유리(稲葉さゆり) 등 배우진도 충실함
- 가수로는 베테랑 일본 전통가요 가수가 강하지만, 최근에는 고타나키 유키(小柳ゆき), 시마다니 히토미(島谷ひとみ), WaT 등 팝부분 가수들의 활약도 돋보임.

- 한 명의 신인을 데뷔시키면 그 신인이 혼자서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다른 신인을 육성하지 않는 방침으로 탤런트 한 사람을 크게 키워나가는 전략임
- 드라마, 영화, 광고 등 양질의 작품에 제대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인기를 얻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 이런 스타일의 프로모션에는 업계 내에서 이미 정평이 나 있음
- 브레이크한 뒤에도 탤런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해 일회성의 인기로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예를 들면, 한때 정상급 아이돌로 활약한 우치다 유키(内田有紀)는 2000년 기타구(北区) 츠카 고우헤이 극단에 입단해 실력파 여배우로 이미지를 바꾸는 데 성공함
- 시마다니 히토미(島谷ひとみ)는 일본전통가요 가수로서 순조롭게 출발했지만, 이후 팝으로 노선을 바꾸어 70년대 인기 가요 곡을 커버해 크게 인기를 얻음
- 관련회사로는 바닝구 퍼블리셔즈(음악출판사)가 있음.

### ○ 신인개발시스템

- 일반적인 방법으로 신인 응모를 받고 있음
- 신인으로 채용된 후에는 필요에 따라 레슨을 받도록 하고, 동시에 그 사람의 적성에 맞춰 드라마, 광고 등에 프로모트해 감
- 가수의 경우는 보이스 트레이닝 등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많지만, 배우의 경우는 드라마의 단역 등으로 프로모트해 현장에서 경험을 쌓도록 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음

## ■ 주식회사 프로덕션尾木(오기)(Production Ogi Co., Ltd)

### ○ 기업개요

- 베테랑 탤런트와 함께 인기가 높은 나카마 유키에(仲間由紀恵) 등, 폭 넓은 연령층, 장르의 탤런트가 소속되어 있음

- 와타나베 프로덕션에서 아그네스창(アグネス・チャン)과 사와다 겐지(沢田研二) 두 명의 인기 탤런트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던 대표 오기토오루(尾木徹)씨가 1978년에 설립한 프로덕션임
- 탤런트 개개인의 재능과 성장에 맞춰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기본으로 업무를 전개하고 있음
- 현재는 인기 여배우의 나카마 유키에(仲間由紀恵)를 필두로 AKB48의 파생 유니트인 노슬리브(고지마 하루나(小嶋陽菜), 다카하시 미나미(高橋みなみ) 미네키시미나미(峯岸みなみ)), 와타리로우카하시리타이(渡り廊下走り隊)(와타베 마유(渡辺麻友), 오오타 아이카(多田愛佳), 나카가와 하루카(仲川遥香), 히라지마 나츠미(平嶋夏海), 기쿠치 아야카(菊地あやか), 일본전통가요의 조우노우치 사나에(城之内早苗), 팝가수 히라마츠 에리(平松愛理), 베테랑 배우 나다카 타츠오(名高達男) 등 폭 넓은 장르의 연예인이 소속되어 있음
- 뮤지컬과 성우 등으로 활약하는 기쿠치 미카(菊地美香), 모리야마에이지(森山栄治), 중국에서 배우, 모델로 활약하고 있는 이노우에 아키코(井上明子)도 소속하고 있어, 매니지먼트 범위가 다양함
- 2010년부터는 동프로덕션 소속의 AKB48, SDN48멤버를 중심으로 한 소속탤런트가 출연하는 음악이벤트 ‘Team Ogi제’ 를 개최하고 있음.
- 관련회사로는 루츠 음악출판, 아라베스크, 오키 프로 THE NEXT 등이 있음.

### ○ 신인개발시스템

- 신인 채용은 기본적으로 관계자들의 소개를 통한 스카우트가 중심임. AKB48에서는 12명의 멤버를 스카우트하고 있음
- <JUNON 슈퍼보이 콘테스트>에서는 이시구로 히데오(石黒英雄), 가미나가 게이스케(神永圭佑)가 스카우트되어 있음
- 연 2회 데☆뷰<여름의 특별 오디션>과 <겨울의 특별 오디션>에 참가하고 있음
- 합격 후에는 먼저 신인 등록을 하고 성장 가능성을 검토함

- 계약 기간 중에는 레슨을 받으면서 프로로서의 마음가짐과 현장에서 간접 경험을 쌓음.
- 그 기간 중에 본인의 노력이 부족하거나 자질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단계에서 계약 해지가 되기도 함
- 지방거주자의 경우는 소속되고 곧바로 상경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중고생일 경우 기본적으로 졸업시까지 지방에서 거주하면서 일이 있을 때만 상경하는 케이스가 많음.

## ■ 주식회사 호리프로(Horipro Inc.)

### ○ 기업 개요

- 1960년 설립된 역사가 오래된 일본의 대형 연예프로덕션임.
- “예능프로덕션을 하나의 기업으로 사회에 인식시키겠다” 는 일념에서 건전경영을 내세우며 1989년 업계 최초로 주식공개를 단행, 1997년에는 동경증권거래소 제 2부 상장, 2002년 9월에는 동경증권거래소 제 1부 상장에 성공했음.
- 다만 2011년 12월 경영환경의 변화로 경영의 자유도 확보를 위해 MBO에 의한 상장폐지를 발표
  - ※2006년도 매출액은 호리 프로는 178억 엔, 그룹 200억 엔
- 몇 개의 신인발굴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호리프로 토탈트 캐라밴’ 은 여성토탈트의 등용문으로 유명하며 수많은 인기 토탈트를 배출해왔음.
- 토탈트가 자신의 매니지먼트를 소속프로덕션에 위임하는 계약을 맺고 있는 다른 연예프로덕션과 달리 호리프로는 기본적으로 급료제로 사무소가 토탈트를 고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
- 부침이 심하고 불안정한 연예계에서 고정 급료제를 유지한 영향 탓인지 장기간 호리프로에 소속되어 있는 토탈트가 많음.
- ‘적당한 계산’ 이 적지 않은 연예계에서 호리프로는 회계 세입세출관리가 매우 엄격한 것으로 소문이 나있음.
- 아울러 젊은 여성토탈트의 연애에 대해서도 관대함(자기 책임주의)

- 매년 ‘스카우트 캐라밴’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영화, 드라마, 무대 제작, 개그에서 교육까지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음
- 와다 아키코(和田アキ子)를 비롯 수많은 스타를 배출해왔고 최근에는 후카다 교우코(深田恭子), 아야세 하루카(綾瀬はるか), 이시하라 사토미(石原さとみ) 등의 여자 배우 분야에서 특히 강함
- 한편, 후지와라 다츠야(藤原竜也), 츠마부키 사토시(妻夫木聡), 마츠야마 켄이치(松山ケンイチ) 등 남자 배우들도 크게 약진하고 있음
- 매니지먼트 업무 이외에도 드라마, 영화, 무대, Web콘텐츠 기획/제작, 음악 제작 등, 폭 넓은 업무를 전개하고 있음
- 자사 제작 무대 <피터팬>은 2010년 여름으로 30주년을 맞이함.
- 캐릭터를 매니지먼트하거나 MD를 제작하기도 하고 있음
- 2006년보다 <덴노슈 긴카 게키죠(天王洲銀河劇場)>의 운영도 하고 있어, 많은 연극과 콘서트를 상연하고 있음
- 관련회사로는 신음악협회, 이진심, 호리에이젠시, 호릭스, 프로덕션 파오, 호리 엔터프라이즈, 호리프로 부킹 에이젠시, 호리프로컴, 대양음악, 호리프로 엔터테인먼트 그룹, 호리 프로 인프루브먼트 어소시에이션, 은하극장 등이 있음.

### ○ 신인개발시스템

- 후카다 교우코(深田恭子), 아야세 하루카(綾瀬はるか), 이시하라 사토미(石原さとみ)를 배출하고 있는 <호리프로 탤런트 스카우트 캐라밴>을 매년 개최하고 있음
- 제 36회가 되는 2011년에는 차세대 성우 아티스트 오디션이라는 타이틀로 1만 2,745명의 응모한 바 있음.
- 무대에서 신인 발굴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후지와라 다츠야(藤原竜也), 사사모토 레이나(笹本玲奈) 등이 무대에서 발굴되어 현재 활발히 활약하고 있음
- 1990년대 초반 코미디 붐과 아이돌의 쇠퇴의 영향을 받아 코미디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 ‘코미디 스터디’를 개설했음. 사전 오디션

- 에 합격하면 무료로 주 1회 호리프로의 스터디 모임에 참가할 수 있음.
- 스터디에서 코미디 소재를 소개하고 상층부가 OK하면 라이브에 출연 가능함. 코미디 양성소로 유명한 요시모토 흥업과 더불어 매우 엄격한 것으로 유명함.
  - 아울러 예의범절에도 엄격해 지각하면 코미디 소재를 소개할 수 없을 정도임.
  - 오디션 이외의 시기에는 일반 공모는 받지 않고 있지만, 동사 아나운스실 만은 수시로 신인을 모집하고 있음
  - 어린이의 정조교육기관(情操教育機関) <호리프로 인프루브먼트 아카데미>에서는 4세부터 주니어 클래스는 4월, 10월의 연 2회 학생을 모집하고 있음
  - 03세의 리틀스타 클래스는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음. 개그맨을 양성하는 <메구로 와라이 우리쥬크(目黒笑売塾)>에서 ‘더 터치’라는 개그 유니트가 데뷔하기도 함
  - 신인 채용 후에는 곧바로 잡지, 광고, 드라마 등에 프로모트를 전개함.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레슨도 준비되어 있음.
  - 지방거주자는 소속이 결정되면 상경하며 미성년의 경우, 호리프로의 기숙사에 입소하는 것이 기본적인 패턴임.

## ■ 요시모토흥업 그룹(Yoshimoto Kogyo Co., Ltd.)

### ○ 기업 개요

- 일본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종합웃음회사’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금년에 창업 100주년을 맞이함. 요시모토 흥업은 코미디계의 명문으로 매니지먼트, 프로모터, TV/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흥행업 등을 사업분야로 하고 있음. 요시모토 흥업은 코미디업을 출발로 그동안 프로야구 및 프로레슬링의 흥행에도 관여해왔고 현재는 연예프로덕션을 중심으로 TV프로그램제작사, 채널운영업, 부동산 사업 등을 산하에 두고 있는 복합기업임.
- 그 동안 일본 코미디 업계를 리드하는 코미디언을 배출해옴,

- 1912년 오사카에서 설립된 이래 2007년 9월까지 일본 연예프로덕션 가운데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녔으나 동년 10월부터 지주회사제로 전환.
  - 동사의 사업부문은 요시모토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요시모토 디벨로프먼트, 요시모토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각각 분사화됨.
  - 이후 ‘요시모토’ 라는 연예프로덕션의 역사는 요시모토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에 계승됨. 그 이후 TOB로 상장이 폐지되고 지상파 민간방송국 등이 주요 주주로 참가하게 됨.
  - 요시모토 흥업의 최대 주주는 후지 미디어 홀딩스 12.13%, 니혼TV 8.09%, TBS 8.09%, TV아사히 8.09%, 다이세이 토지 8.09%, 교라쿠 산업 8.09% 등임.
- ※2008년도 매출액은 그룹 전체는 489억 엔, 단독은 58억 엔임.
- 아카시아산마(明石家さんま)와 다운타운(ダウンタウン) 등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개그맨 텔런트가 다수 소속되어 있음
  - 개그 콘서트를 베이스로 텔런트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제작 등을 전개하고 있음
  - 현재는 본거지 오사카(大阪) 이외에도 도쿄본부, 도카이(東海)지사를 설립하고 있음
  - 삿포로(札幌), 히로시마(広島), 후쿠오카(福岡)에도 지사, 사무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음
  - 전국 각지에서 텔런트 프로모션과 개그콘서트가 가능함.
  - 극장 이외에도 생선을 관찰하면서 배울 수 있는 <요시모토 오모시로 수족관(吉本おもしろ水族館)>, <사카나노 아카짱 수족관(サカノの赤ちゃん水族館)> 등의 시설도 전개하고 있음
  - 개그 이외의 분야에서도 스포츠 선수, 뮤지션, 배우, 문화인 등의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으며, 미국 최대 텔런트, 스포츠선수 에이전시 CAA와 업무 제휴를 체결하고 있음
  - 2010년에는 중국의 미디어기업 <상해 미디어그룹(SMG)>과 장기적인 업무 제휴를 체결함

- 2009년부터 오키나와(沖縄)에서 <오키나와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음. 2011년에는 ‘더욱 관객과 지역 주민들과 밀착된 이벤트를’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도쿄와 간사이(関西)에서 <YOSHIMOTO WONDER CAMP>를 개최하고 있음
- 디지털콘텐츠비즈니스, 인터넷 비즈니스, DVD/CD 제작/판매 등, 폭넓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 소속연예인의 다수는 계약서도 없고 구두 계약 조차 없음. 정상급 코미디언인 마츠모토 히토시 등은 “계약금을 받은 적도 없고 이대로 어딘가에 소속되도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말함.
- 또한 탤런트 이동시 서포트도 없어 아무리 인기가 있더라도 연예인 자신이 알아서 이동함. 매니저보다 탤런트가 훨씬 많아 충분한 매니지먼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요시모토와는 별도로 개인사무소를 설립한 연예인도 있음.
- 기본적으로 탤런트의 개런티는 보합제임(실적 기준 지불). 일이 거의 없는 신인의 경우 요시모토에게 돌아가는 분과 소득세를 빼면, “은행의 ATM수수료 및 교통비가 개런티보다 많다”고 할 정도로 임. 신인의 경우 별도의 아르바이트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연예인도 많음.
- 다만 TV출연료(요시모토 관련 프로그램은 제외), 코미디 콘테스트 상금 및 CM출연료 등에 대해서는 요시모토 흥업에서는 전액 탤런트에 지불(원천징수 제외)
- 요시모토흥업은 일부 연예인과는 전속 계약, 신인등 다수와는 무계약형태를 띠고 있음. 그러나 요시모토와 관계를 정리하고 떠나는 연예인은 무명에 가까운 신인이 소속사를 옮기는 것을 제외하고 거의 없음.
- 요시모토흥업은 떠난 연예인의 연예활동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임.
- 요시모토 흥업관련회사로는 요시모토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 요시모토 R&C, 요시모토 디벨로프먼트 등이 있음.

### ○ 신인개발시스템

- 연예인 육성 기관으로 <NSC 오사카><NSC 도쿄>(요시모토 종합 예능학원)이 있음
- 오사카, 도쿄 모두 3월에 접수를 시작해, 4월 입학으로 각각 1년 1기제로 운영되고 있음
- 탤런트와 여배우를 지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탤런트 코스>와 <배우 코스> 등도 설치되어 있음
- 스태프 육성 학교 <요시모토 크리에이티브 컬리지>도 운영되고 있음.
- 오사카, 도쿄본부와 각 지의 지사와 사무소에서 오디션이 개최되어, 전국 규모에서 신인 발굴을 하고 있음
- 그 외에 소속 탤런트의 개인 연습생으로 입문하는 방법도 있음

### ■ 주식회사 와타나베 엔터테인먼트(Watanabe Entertainment Co., Ltd.)

#### ○ 기업 개요

- 1950년대에 설립된 와타나베 프로덕션은 12사 1재단을 통괄하는 지주회사임.
-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와타나베 프로덕션 없이는 노래 및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어” 라고 할 정도로 이른바 ‘잘 나갔던’ 프로덕션이었음.
- 원래 와타나베 프로덕션은 연예인에 대해 차별도 편견도 많았던 연예인의 대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재즈 뮤지션이었던 와타나베 등이 당시 영업과 출연료 일부를 받는 것이 전부 였던 연예 프로덕션의 업무를 레코드 및 TV프로그램 및 영화 제작 등으로 크게 확대시킴. 이로 인해 레코드 원작제작수입 및 프로그램 제작비, 흥행수입이 들어오게 되면서 현재와 같은 연예 비즈니스 스타일을 구축했음.
- 또한 악곡을 관리하고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와타나베음악출판을 설립하고 와타나베 프로덕션에 소속된 가수만이 아니라 해외 아티스트의 악곡도 관리해 수익을 올림.

- 그때까지 개인상점, 도제 시스템에 가까웠던 연예사무소의 조직화를 단행해 “한 사람의 매니저가 데뷔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탤런트와 운명을 같이 한다” 는 종전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개선해 한 사람의 탤런트에 대해 복수의 매니저를 붙이고 몇 년마다 교체하는 시스템을 채택함.
- 배우, 가수, 코미디어로 분업화되어 있던 영역을 무너뜨리고 인기 가수 및 배우에게 촌극을 연기하게 하는 등 현재와 같은 멀티 탤런트적 모델을 당시부터 개척해왔음.
- 다만 연공서열 방식의 월급제를 고집하는 사람에 인기가 없음에도 월급을 많이 받는 것 등에 불만을 품고 독립하는 배우도 다수 존재.
- 이후 1970년대 후반에는 호리프로, 1980년대 코미디 붐에 의한 요시모토 흥업, 남성아이돌 프로덕션으로 유명한 자니스 등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와타나베 프로덕션의 영향력은 떨어짐.
- 그 이후 독립을 희망하는 탤런트에 대해 와타나베 프로 및 계열 사무소가 독립이후의 사무소에 51% 출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표면적으로는 독립을 인정하고 있음.
- 배우, 개그맨, 뮤지션, 아이돌 등 틀에 억매이지 않는 폭 넓은 장르의 아티스트를 매니지먼트하는 한편,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출판, 머천다이징, 디지털콘텐츠 등 엔터테인먼트의 프로모션을 전개하고 있음
- 창업 이후 일본의 오리지널 뮤지컬로써 높은 평가를 받은 <더 히트 퍼레이드>와 젊은 배우 집단 D-BOYS 출연으로 인기가 높은 <D-BOYS STAGE>의 정기 공연 등, 무대 제작에도 의욕적으로 진출하고 있음
- 다양한 장르의 엔터테인먼트의 발신 기지로써 리뉴얼 오픈한 라이브 스페이스 <Omotesando GROUND>와 상품 샵 <OUT OF ORDER Shop>을 운영하고 있음
- 아티스트에서 스태프까지 모든 인재를 육성하는 <와타나베 엔터테인먼트 컬리지>의 개교 등 엔터테인먼트의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음

- 와타나베 프로덕션은 주식공개에는 반대하고 있는데, “연예산업은 장기적인 스판이 필요하며 주가를 신경쓰며 주주에게 항상 배당해야 하는 상황하에서는 성립되기 어렵다” 는 입장임.

○ 신인개발시스템

- 배우 부문에서는 젊은 배우 집단 ‘D-BOYS’ 가 텔레비전, 영화, 뮤지컬 등 다방면으로 활약할 수 있는 새로운 멤버를 모집하고 있음
- 가수, 여배우 등 다양한 장르에서 수시로 모집하고 있음
- 신인으로 채용된 뒤 배우부문은 오디션합격 후에 신인양성계약을 체결하고 연극, 노래, 댄스 등 모든 장르에 대응할 수 있는 레슨을 통해, 본인의 자질을 살린 프로모트를 전개함
- 개그맨 부문은 기본 심사를 통과한 뒤 오디션 라이브에 출연할 수 있고, 이 오디션 라이브에서 사내 심사를 통해 신인 양성 계약을 검토함
- 모두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육성한다는 방침임